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8 202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5 / 8

시절 인연	02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8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복업
법정 스님 편지	11	보배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4	보구중생묘덕普救衆生妙德 주아신 2
법정 스님 향기	16	법정 스님이 사랑한 '차쥬'
다시 만나는 법정스님	18	언론과 정치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5년 8월 1일 발행 / 통권 366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3

☸ **이제진**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 불필요한 것에 대한 욕심을 줄이면 결국 환경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대를 물질만능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의 편중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결국 나눔이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라서 막상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을 품으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 **법정**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이 주는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햇볕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 한시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무상으로 받는 것들입니다. 또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지와 이웃의 은혜 등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혜택과 은덕 속에 사는데, 내가 받기만 하고 그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 생애 동안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삶의 빚쟁이로 남지 않으려면 자연의 은혜, 주변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디 내 것이 아니니 나눈다고 해서 아까울 것도 없고, 나눔을 꺼릴 일도 아닙니다. 잠시 맡아 가지고 있던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으로써 내 정신적 자산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말로는 쉬운 일이어도 실천에 옮기기란 어렵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인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생을 하직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태어나 살다 보니 어떤 인연을 따라 내게 들어온 것일 뿐이고, 그것을 잠시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내게 잠시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면 덕이 되고 보은이 됩니다. 당연히 관리하는 것은 부를 생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산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 자신이 확산이 되고 선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저 손아귀에 움켜쥐고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사람의 그늘이 딱 거기까지로 한정이 됩니다. 더운 여름철, 큰 나무 아래 넓고 시원하게 뻗은 가지처럼 좋은 그늘을 만들어야 하는데, 고작 자기 주변으로 밖에 가지를 뻗지 못한다면 좁고 답답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 꼭 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노점을 하던 할머니가 꼬깃꼬깃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가난한 학생에게 밥 한술 더 얹어 주는 마음이 바로 큰 나무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자기가 어렵게 살던 시절 생각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기에 선뜻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때를 기억하듯, 어렵게 사는 이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로는 적합할지 몰라도 인간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는 이 둘을 적절히 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는 하되,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것이 윤리 소비, 윤리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생활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앞날과 또 미래의 인류를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19세기 말 유럽을 보면 세기말적인 분위기에 휩싸
 여 있었지요. 사상과 도덕이 무너지고 기존 질서는 혼란에 빠졌
 습니다. 그러면서 향락적이고 퇴폐적으로 흘러갔지요. 그런
 분위기의 한 축을 이룬 것이 비대칭적인 소비입니다. 소비하는
 사람은 더 소비하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외되었습니
 다. 21세기를 앞둔 작금의 사회 현상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
 다. 이를 타파하는 가장 쉬운 길이 바로 나눔입니다.

🌸 **이계진** 지금의 경제 개발 그리고 고도성장을 추구해 나가
 는 과정이 사실은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망치는 것이라는 얘
 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종교를
 넘어 범종교적 차원에서 함께하는 운동이기는 하지만, 아무래
 도 중심을 이루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자
 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법정**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야겠지요. 가령 아파트에 마음
 이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는 남들이 일어나기도
 전인 새벽 일찍 아파트 곳곳을 쓸고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면 그걸 주워 쓰레기통에 버릴 테지요. 그런 일상적
 이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야 큰 뜻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지,
 개념만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전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선한 마음의 움직임 하나가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기본이 된다고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으
 리라 생각합니다.

또 사람의 본심, 본래 마음은 맑고 향기로운 것인데 우리가
 어지럽고 흐린 세상을 살다 보니 망가진 것입니다. 없는 마음을
 새로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본디 있던 마음, 잃어버렸던 마음
 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계진** 스님께서 무소유에 관한 글을 쓰셨습니다. 쓰신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큰 암자를 버리고 강원도 두메산골에
 들어가 가진 것 없이 청빈한 생활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하지
 만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실제 생활이 다른 경우가 많습
 니다. 또 일반인들이 모든걸 다 버리고 살 수도 없지 않습니
 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 **법정** 제가 무소유를 주창하고 또 글로도 쓰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일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면 아마 무소유를 내세울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에 비하면 적겠지만, 출가 수행자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책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그밖에 무슨 문구
 류라든가 돌아보면 진짜 많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빈손으로 왔고, 집에서 중 되려고 나올 때도 빈손으로 왔는
 데 살다 보니까, 가진 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물론 불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특히 옷 같은 게 그렇겠지요. 별거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 농처럼 말합니다만,
 발작적이라고 할 만큼 정리 정돈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니까. 그래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을 때 가진 것을 정리합니다. 책도 정리를 하고, 일상용품들도 정리합니다. 내게는 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출가 정신과도 상통할 거예요. 사람은 목은 수렁에 갇히면 거기서 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황무지라면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하면 새가 낡은 등지를 떠나듯 자신을 읊아매는 수렁에서 벗어나야 하고 황무지인 마음을 개간해야 합니다. 정리 정돈은 바로 그 시작인 셈이지요. 그런 습관이 몸에 배다 보니까 가끔 무슨 병처럼 몇 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올봄에도, 제가 강원도 와서 지금 다섯 번째 여름을 맞게 되면서 뭔가 정리 정돈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요즘 대폭 정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치수에 맞지 않으면 옷을 바꾸듯, 소유가 마음의 치수에 맞지 않으면 훌훌 옷을 벗듯 버리는 것입니다.

🌸 **이계진** 그곳을 떠나려고 하시는 건 아니지요?

🌸 **법정** 그건 아닙니다. 물론 한 생각 일으키면, 지금 있는 거처가 내가 지은 곳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지금 몸을 두고 있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내 안으로 한 가지 득이 있다면 거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내가 불일암을 지어 살고 있을 때는 기왓장 하나가 깨져도 올라가서 덮어야 하고, 수채가 막히면 뚫어야 하고, 또 지은 지 이십 년이 되다 보니 서까래가 썩어서 보수도 해야 하고 혼자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 진이 빠졌습

니다.

불일암에 살 때 같으면 진두지휘해서 수리할 텐데 강원도에 살면서는 거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몸도 버리고 갈 텐데 집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런 생각에 빠지면 거기에 걸려서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맙니다. 진짜 무소유라는 것은, 출가 정신이라는 것은 낚을 거둬거둬 털고 일어나는 것이고 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면 집착과 불안이 모두 끊어져요. 집착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걱정하니 차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 **이계진** 기거하시는 그곳은 주인이 없습니까?

🌸 **법정** 주인은 있는데, 제가 있고 싶을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있으라고 합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오지 않고 또 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낼 만해요. 요즘 절은 관광도 관광객이지만 절 자체가 오염돼서 저 같은 괴팍한 중이 살기 몹시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완벽하게 나만의 사유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날까지 몸을 잠시 맡기고 있습니다.

- 이 글은 1996년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약수암에서 법정 스님과 이계진 아나운서 대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대담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4회(6월~9월호)에 걸쳐 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복업

옛날 어느 나라에 선광善光이라는 왕녀가 있었다.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해 부모들이 무척 귀여워했으며, 궁중에서도 다들 사랑스럽게 여겼다.

왕이 딸에게 말했다.

“너는 내 힘을 입어서 많은 사람한테서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다.”

그러자 딸이 대답했다.

“아버지의 힘을 입어서가 아니라 제게 그럴 만한 복업의 힘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벌췌 화를 내면서 말했다.

“너한테 그럴 만한 복업의 힘이 있는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보리라.”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성안에서 가장 험벗고 굶주린 거지를 한 사람 데려오도록 하라.”

신하들은 왕의 명을 받고 가장 가난한 거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왕은 거지에게 선광을 아내로 삼으라고 주면서, 딸에게 말했다.

“네 복업의 힘 때문인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그러나 선광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다.

“제가 지어 놓은 업의 힘 때문이지요.”

그녀는 왕국을 떠나면서 거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에게는 부모님이 계세요?”

거지가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전에 이 성안에서 첫손 꼽는 부자였소. 그런데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의지할 곳 없이 이렇게 거지 신세가 되었소.”

선광이 다시 물었다.

“당신은 예전의 그 집터를 아시나요?”

“터야 알지만, 지금은 집도 담장도 다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 있소.”

선광은 남편을 데리고 옛 집터를 찾아가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이때 흙더미 속에서 반짝거리는 것이 있었다. 흙을 헤치고 보니 그것은 보물 상자였다.

그녀는 그것을 팔아 그 터에 집을 새로 짓고, 세간살이는 물론 하인과 종들을 두루 갖추어 놓고 호화롭게 살았다.

왕은 어느 날 문득 딸 선광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

“내 딸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 왔는지 궁금하도다.”

곁에 있던 신하가 아뢰었다.

“집과 재물 등이 왕궁 못지않사옵니다.”

왕은 감탄하면서 말했다.

“과연 세존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자신이 선악을 지어 스스로 그 값을 받는다더니.”

왕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제 딸은 무슨 복업을 지었기에 왕가에 태어나 몸에서 빛이 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 비바시불이 계실 때, 반두라는 왕이 있었소. 비바시불이 열반에 든 뒤 그 왕은 탑을 세워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했고, 왕비는 비바시불의 상像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발원했었소. ‘이다음 세상에 내 몸에서는 금빛 광명이 나고, 부귀를 누리면서 삼악도와 팔난八難(여덟 가지 괴로움과 재난. 배고픔·목마름·추위·더위·물·불·칼·병난)을 만나지 않게 하여지이다.’

왕이여, 그때의 왕비가 바로 오늘의 선광입니다. 그리고 가섭 부처님 때 그녀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양했는데, 남편이 들어와 그것을 만류했소. 그러나 그녀는 손님들이 맛있게 공양하도록 방해하지 말라고 했소. 그때의 그 남편이 오늘의 저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공양을 만류한 인연으로 항상 가난하게 살다가, 아내 덕으로 공양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부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떠나면 다시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악의 업이 마치 몸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잡보장경〉 제2권

*법정 스님 강론

이 설화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는 인과관계이다. 그러니 선광이 왕녀의 몸을 받은 것도, 거지 남편을 만나 잘 살게 된 것도 그녀의 말대로 아버지의 후광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일찍이 그럴 만한 복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어 놓은 복이 다하면 그 혜택권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인과의 법칙이다.

3.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보구중생묘덕普救衆生妙德 주야신 2

내가 이제 부처님의 힘을 받들어 그대에게 말하겠다. 지나간 옛적 불찰 미진수겁을 지나 원만청정이라는 겁이 있었는데, 세계의 이름은 비로자나 대위덕大威德이었다. 그때 수미산 미진수 여래가 그곳에 출현했었다. 그 첫 부처님의 이름은 보지보염묘덕당普智寶嚴妙德幢이신데, 연꽃 위에서 처음으로 위없는 보리를 얻었고,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바른 법을 설해 중생을 가르쳤다. 이 여래께서 성불하기 전에 그 연꽃에서 광명을 놓았는데, 그 광명을 만난 중생들은 마음이 열려 모르는 일이 없었다. 이 여래께서 위없는 보리를 이룰 때 시방의 모든 세계에도 위없는 보리를 이루었다. 중생의 마음을 따라 그 앞에 나타나서 법륜을 굴리고 날날 세계에서 무량 중생에게 나쁜 길의 고통을 벗어나 천상에 가게 하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머물게 했다. 무량 중생에게 벗어나는[出離] 보리행을 성취하게 하고, 무량 중생에게 용맹스러운 보리행을 성취하게 하고, 무량 중생에게 법광명 보리행을 성취하게 하고, 무량 중생에게 청정한 뿌리 보리행을 성취하게 하고, 무량 중생에게 평등한 힘 보리행을 성취하게 하고, 무량 중생에게 법성法城에 들어가는 보리행을 성취하게 했다. 또 무량 중생에게 온갖 처소에 두루 가서 무너뜨릴 수 없는 신통력 보리행을 성취하게 하고, 무량 중생에게 보문普門 방편도에 들어가는 보리행을 성취하게 하고, 무량 중생

에게 삼매문에 편히 머무는 보리행을 성취하게 하고, 무량 중생에게 모든 청정한 경계에 관계되는 보리행을 성취하게 했다. 또 무량 중생에게 보리심을 발하게 하고, 무량 중생을 보살도에 머물게 하고, 무량 중생을 청정한 바라밀다에 편히 머물게 하고, 무량 중생에게 뛰어난 행과 원에 들게 하고, 무량 중생에게 보살의 초지^{初地}와 내지 십지^{十地}에 머물게 하고, 무량 중생에게 보현의 청정한 행과 원에 편히 머물게 했다.

선남자여, 그 여래께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자재神通을 나타내어 법륜을 굴릴 때, 낱낱 세계에서 소망대로 순간순간 무량 중생을 가르쳤다. 그때 보현보살은 보화등^{寶華燈} 왕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의 용모와 환경을 믿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깔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단정하고 뛰어난 모습으로 화현해 그 성안에 들어가 큰 광명을 놓았다. 그러자 왕과 보배와 사람들이 빛을 잃었다. 마치 해가 뜨면 모든 별빛이 사라지듯이, 검은 먹덩이로 염부금^{閻浮金}을 대하듯 했다.

이때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것이 누구의 짓일까. 하늘인가 범천인가. 이렇게 광명을 발하니 우리들의 빛이 모두 무색해지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짓인지 알 수가 없네.’

이때 보현보살은 왕궁이 있는 상공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왕이여, 지금 그대의 나라에 부처님이 출현해 보광명법운음당^{寶光明法雲音幢} 보리수 아래 계시니라.’

왕녀인 연화묘안^{蓮華妙眼}은 보현보살의 몸에 광명이 찬란함을 보았고, 몸에 있는 온갖 치장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마음에 환희가 일어 이렇게 발원했다.

‘원컨대 제게 있는 모든 선근의 힘으로 이런 몸과 장엄과 상호와 위익과 자재自在를 얻게 해지이다. 지금 이 거룩하신 보살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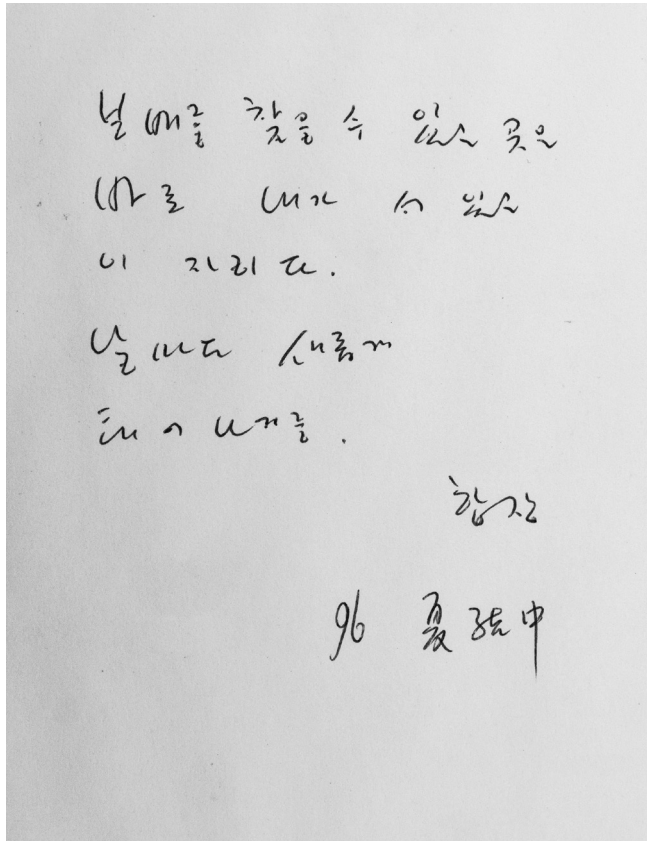
중생들의 태어나고 죽는 긴긴 밤의 암흑 속에 큰 광명을 놓아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함을 보이시니, 원컨대 저도 그와 같이 모든 중생에게 지혜의 광명이 되어 그들의 무지와 암흑을 깨뜨리게 하소서. 제가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이 선지식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때 전륜성왕은 그 딸과 많은 아들과 권속 신하들과 네 종류의 군대와 성안의 백성들에게 앞뒤로 에워싸였다. 왕의神通력으로 한 유순쫘 높은 허공에 올라가 큰 광명을 놓아 사천하를 비추었고, 그를 우러르는 중생들과 같이 부처님께 가 뵈려고, 부처님을 찬탄해 중생들을 깨우치고, 도량으로 나아가 여래의 처소로 향했다. 보지보염묘덕당왕 여래의 발에 절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는 연화좌에 앉았다.

그 여래께서 경전을 설하시니, 그 이름이 일체여래전법륜^{轉法輪}이었다. 그때 전륜성왕의 딸이 경전을 듣고 많은 삼매문을 성취했다. 그 마음이 유연해 거칠지 않음이 마치 첫 수태와 같았고 처음 탄생과 같았으며, 사라수의 새싹과 같았다. 그 삼매의 마음도 그와 같았으니, 이른바 부처님을 보는 삼매, 세계에 두루 비추는 삼매, 삼세의 문에 들어가는 삼매, 부처님의 법륜을 설하는 삼매, 부처님의 서원을 아는 삼매, 중생을 깨닫게 해 생사의 고통에서 나오게 하는 삼매, 중생의 어둠을 깨뜨리려는 삼매, 중생의 고통을 없애려는 삼매, 중생의 즐거움을 내려는 삼매, 중생을 가르치면서도 싫증을 내지 않는 삼매, 보살의 걸림 없는 삼매, 청정한 부처님 세계에 나아가는 삼매 등을 얻었다. 또 묘정심^{妙定心}을 얻고, 부동심과 환희심과 안위심^{安慰心}, 광대심^{廣大心}을 얻었다.

* 선재동자가 보구중생묘덕주야신을 찾아 가르침을 듣는 간절한 구도 이야기는 3회로 나뉘어 계속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편지



보배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내가 서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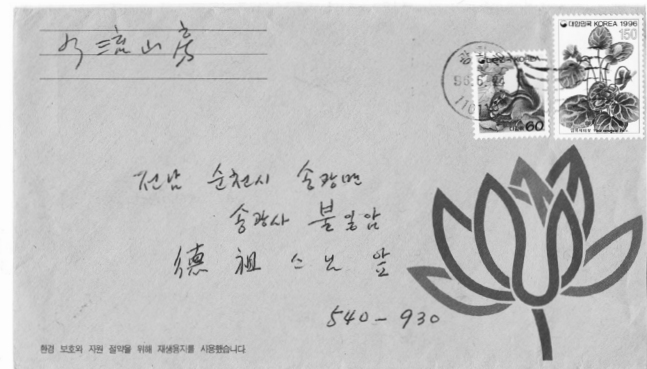
이 자리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합장

96 하결중 夏結中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96년 6월 덕조 스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차硯’

스님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식물 가운데서 차가 ‘가장 맑고 향기로운 식물’이라 했습니다. 차가 자생하는 곳은 산속이기에 차는 맑은 이슬, 별빛, 달빛, 햇빛, 바람, 구름을 먹고 삽니다. 차 나무는 ‘산의 신선한 정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즐기다 보면 산의 정기와 맑은 기운을 체득하게 됩니다.

스님은 중국의 작가 임어당이 차에 대해 설명한 글을 소개했습니다. ‘차는 우리들을 한가하고 고요한 명상의 세계로 이끄는 힘이 있다. 차는 고결한 은자와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차는 청순함의 상징이다.’

스님은 차를 ‘청적淸寂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청淸은 ‘맑다’라는 뜻이고, 적寂은 ‘고요하다’라는 뜻으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를 가까이하면 인품이 청적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미각을 통해 정신적으로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삼으려는 취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차가 없었다면 무척이나 삭막했을 것입니다.

〈다경〉에는 ‘화를 가라앉히는 데는 술을 마시고,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는 차를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은 시끄러운 곳이든 조용한 곳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실 수 있지만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는 고도로 승화된 ‘미의식의 세계’이므로 마시는 분위기와 상대가 중요합니다. 차는 혼자 마시면 ‘신묘’한데 그것은 선정에 들어 느끼는 기쁨인 ‘선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마시는 차를 ‘이속離俗’이라 합니다. 이속은 ‘속세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사람이 많으면 어수선했다. 차의 그윽한 정취가 없어집니다. 초의 선사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홀로 차를 마시면 ‘속세’를 떠나고, 둘이서 마시면 ‘한적閑寂’해지고, 셋이나 넷이서 마시면 ‘유쾌愉快’해지고, 다섯이나 여섯이 마시면 ‘저속低俗’해지며, 일곱이나 여덟이 마시면 ‘그저 나뉘’ 마신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이처럼 차를 마시는 사람이 많아지면 차가 가진 그 고유한 정취는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한겨울에 샘에서 물을 떠다가 다로에 불을 지피 정성껏 끓였습니다. 다관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관에서 물 끓는 소리’를 각별하게 여깁니다. 한 잔의 향기로운 차를 대할 때면 ‘살아가는 고마움’과 ‘잔잔한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행복의 조건은 거창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일상’ 속에 있음을 한 잔의 차를 통해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를 즐기는 목적은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맑음과 고요 그리고 향기’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차는 빛깔과 향기와 맛이 두루 갖춰져야 하는데 가장 으뜸은 ‘향기’입니다. 좋은 차는 좋은 물을 만나야 빛과 향과 맛을 온전히 낼 수 있습니다. 스님은 향기로운 차 한잔에 ‘온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 백형찬 : 서울예술대학 교수 역임, 수필가, 맑고 향기롭게 회원

언론과 정치

《씨울의 소리》가 다시 복간된다고 하니 실로 감회가 무량하다.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씨울의 소리》에 참여했던 그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이 땅의 얼룩진 언론사를 보는 것 같아 착잡하고 씁쓸한 감회가 앞선다. 여러분이 겪어서 익히 알고 있겠지만, 《씨울의 소리》에 글을 쓰기가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였다. 글은 필자의 생각과 뜻을 전하기 위해 쓰는 것인데, 이 생각과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이 번번이 깎일 때마다 분노와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어떻게 하면 당국의 검열에 꺾이지 않고 글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하다 보면, 글 쓰는 사람의 자존심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 깎이건 말건 하고 싶은 소리나 하고 보자고 나서면 실린 글보다는 깎인 글이 훨씬 많아, 문맥은 고사하고 문장 자체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 《씨울의 소리》에 글을 쓰기가 얼마나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알 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함 선생님께서도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마디 말을 하기 전에 천 마디 말을 제 속에서 먼저 버려야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한 줄 글을 쓰자면 백 줄을 제 손으로 우선 깎아버리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이다…….”

1970년대까지는 이렇게 해서라도 《씨울의 소리》는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정권 당사자들은 아예 잡지 자체를 폐간시키고 말았다. 방송과 신문을 통폐합이란

이름 아래 목을 조르고, 읽을 만한 잡지도 더 나올 수 없도록 짓밟아버린 것이다. 실로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한 군사 깡패들의 소행이 아닐 수 없다.

정치가 무엇이고 언론이 무엇인지, 정치와 언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가가거겨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무리들이 폭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왔으니, 무고한 백성들이 겪은 괴로움이며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칼자루를 쥐고 다스리는 쪽에서 보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언론이 못마땅하고 귀찮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어차피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공동체의 의견이 서로에게 소통되고 존중되어야 그 공동체가 병들지 않는다. 거두절미하고, 만약 1980년대에 들어서 신문이나 방송·잡지 등 언론이 활성화되어 제구실을 했다면, 이른바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이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언론의 말살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부패와 말살로 이어진 것이다.

제도언론 속에서 북장단에 맞춰 놀아난 정치의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은 국민과 나라의 희생이며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국민의 입과 눈을 강제로 가려놓고, 어떻게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웃기는 수작이다.

순진한 백성들을 우롱하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고 그 뒤에서 갖은 불의와 부정과 비리를 자행한 제5공화국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삶의 실상이란 점이 우리를 더욱 분하게 하고 착잡하게 만들고 있다.

언론을 교살한 정치가 어떤 정치인지,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역대 정권에서뿐 아니라 세계 정치사에서 우리는 역력히 보아오고 있다. 언론이 부재한 사회에서는 정치마저 부재하고 병들고 만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정권을 쥔 사람들은 어째서 그때마다 망각하고 있는지 실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 언론은 그 사회의 공기公器이고 또한 공기空氣와 같다. 언론이 공기公器이기 때문에 양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책임이 따른다. 언론은 또한 그 사회의 공기空氣와 같기 때문에 그것이 흐리면 숨이 답답하고, 결핍되면 그 사회 전체가 질식하게 된다. 의무를 등지거나 무책임한 언론의 횡포는 단연 배격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회의 공적公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식을 지니고 그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지원하고 정치가 가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이 건전한 언론이고 사이비인지는 정치권력에서 상관할 것이 아니라 독자와 청취자(국민)의 양식이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자와 청취자가 곧 현실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열린 사회란 밖으로 통상이 확대되고 여행이 자유롭게 된 것만으로는 그렇게 부를 수 없다. 무엇보다도 말길과 듣는 길이 열려 서로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고 이해와 믿음과 협력으로 다져진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살피고 거드는 것이 언론의 기능일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막힌 사회를 청산하고 활짝 열린 사회에서 마음 놓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1988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 앙 모 임 (02-741-4696)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 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쉼 없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숭기행 하반기 일정 안내

진행일	장소	접수일
8월 23일(토)	강원 인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점봉산 분소 - 곰배령	6월 30일(월)
9월 27일(토)	충북 과산 학소대 - 능운대 - 채운암 - 우암 송시열 유적	9월 1일(월)
10월 25일(토)	강원 영월 만봉사 - 싸리재 삼거리 - 남석 광업소 - 동전 연못	10월 1일(수)

- 참가비 : 회원 50,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접수 및 자세한 설명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4일(월)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 구 모 임 (053-753-8883)

■ 자원봉사자 모집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지원활동(조리, 준비, 정리 등)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4시
- 청도 운문사 정기 봉사활동 / 쌀 지원 받음 / 매월 셋째 월요일 8시 30분

출발 / 10시~14시 봉사활동 / 16시 30분 도착
 - 아나바다 장터, 사무보조 등 자원봉사자 모집(하루 2~3시간 의류 정리, 서류 정리 등)

●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아나바다 장터,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5층) 상시 운영**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무소유기행' 연2회 진행**

● **어려운 이웃 반찬, 쌀, 물품 지원 사업**

- 홀로어르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정신장애인, 난치병 환우 가정 지원

●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정서 지원 사업 : 경로급식 및 행복치료**

● **아나바다 장터 운영 :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 마련,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기부받음**

● **환경지킴이 활동**

- 생분해 용품 사용하기, 물티슈 안쓰기, 일회용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 8월 2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보름기도

- 일시 : 8월 8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8월 11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8월 17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

- 일시 : 8월 23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칠석기도

- 일시 : 8월 27일(수)~29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자비도량참법

- 일시 : 8월 30일(토)~9월 5일(금) 13시 30분
- 장소 : 설법전

2026학년도 대입수능 100일 기도 입재 안내

- 일 시 : 8월 6일(수) 오전 9시 50분
- 장 소 : 극락전
- 수능기도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입재 후 매일 기도는 오후 2시에 병행합니다.

일요법회 - 원제 스님 (BBS 선방 클래스)

- 일 시 : 8월 24일 (일) 11시
- 장 소 : 설법전

불교 강좌 수강생 모집

길상사 50기 불교입문

- **입재식** : 7월 31일(목) (총 12강 및 수계식)
- **장 소** : 설법전 ● **시 간** : 목요일 13:30~15:30
- **자 격** :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 **동참금** : 15만원(교재비 별도)

길상사 4기 사경반

- **입재식** : 7월 30일(수) (총 18강)
- **장 소** : 설법전 ● **시 간** : 수요일 13:30~15:30
- **강의내용** : 법화경 ● **동참금** : 20만원(교재비 별도)

하룻밤, 무소유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고요 속의 자유를 경험하세요.

일정	8월 9일(토)~8월 10일(일)
	8월 16일(토)~8월 17일(일)

- **시 간** : 첫날 15:00 ~ 둘째날 15:00
- **참가비** : 7만원
- **대 상** : 수행과 비움에 관심 있는 누구나

※ 템플스테이 문의 : 010-9677-5945

백중 천도재 49재 안내

초재	7월 25일(금)	● 시간 :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10만원(영가 10위까지, 추가 1위당 5천 원) ● 설판 접수 받습니다. 설판 동참자는 주지스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동참금 10만원 이상 자율보시)
2재	8월 02일(토)	
3재	8월 09일(토)	
4재	8월 16일(토)	
5재	8월 23일(토)	
6재	8월 30일(토)	
막재	9월 06일(토)	

백중(우란분절) 승보 공양 모연

- **시 간** : 9월 5일(금) 오전 9시 50분 ● **장 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이상 자율보시
- **문의 및 접수** : 02)3672-5945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3-875653/길상사

※ 우란분절 행사 관계로 승보공양 행사는 하루 전날 봉행합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